

“점퍼·패딩 준비하세요”...광주 백화점들 올 마지막 정기세일

광주지역 백화점업계가 겨울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 행사로 올 겨울패션 준비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15일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연말세일’ (할인행사)을 진행한다.

특히, 광주신세계 여성·남성·스포츠·아동 장르의 대표적 브랜드들이 20~30%의 시즌오프도 동시에 들어가면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 통상 백화점의 연말 시즌 오프는 1년 중 가장 할인폭이 크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에스까다, 질스튜어트, 자디엔볼테르, 아르마니닌, 마쥬 등 30여개 브랜드가 있다.

세일기간 중인 17일부터 19일까지 1층 시즌 이벤트홀에서 블랙야크, 컴퍼비아,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브랜드가 대거 참여하는 겨울 아우터 특집행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장소에서 겨울 부츠, 소품 특집전을 동시에 전개한다.

아울러 겨울 필수품인 점퍼에서 패딩까지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

●광주신세계

200개 브랜드 ... 60% 할인

겨울 아우터 특집행사 전개

23일까지 호남 물산전 열려

다. 테이트에서는 정상이 24만9000원의 상품을 17만9000원(100매 한정)에 판매하며, 마인드브릿지도 16만9000원 상품을 6만9000원(50매 한정)에 판매한다.

아이디에서도 점퍼와 패딩 등 52만9000원 상당의 상품을 절반가 수준인 25만1000원(100매 한정)에 내놓는 등 일부 브랜드별 하루 최대 100매 한정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농가와 직거래를 통한 상생 실천을 위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호남물산전’도 17일부터 23일까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같은 기간인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최대 7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겨울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롯데 광주점

‘블랙 페스타’ 주제로 세일

벤치파카 등 방한용품 붐물

10억 물량 진도모피 퍼대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이번 겨울 정기세일 주제는 ‘블랙페스타’로, 해외명품부터 남성복, 여성복, 스포츠, 구두, 핸드백까지 총 450여개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최대 7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추위가 시작되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벤치파카’(통패딩)부터 코트, 모피, 머플러 등 방한용품 물량을 대거 쏟아내며 고객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세일 첫날부터 단 2일간(16일~17일) 브랜드별 ‘출서기 상품 특별전’과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진도모피 퍼(FUR)대전’을 10억대 물량으로 최대 7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9층 점 행사장에서는 코오롱스포츠 아우터도 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지난해 겨울 정기세일 기간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행사장에서 진행한 코오롱스포츠 할인전 모습.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로 판매한다. 이밖에 17~21일까지 5일간 9층 사은행사에서 1등 골드바 2000g+쇼핑지인

금 3000만원(1명), 2등 골드바 1000g+쇼핑지인 1500만원(2명), 3등 골드바 500g+쇼핑지인 700만원(3명) 등 ‘롯데월

드타워 골드바’의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경품행사도 마련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삼겹살·갈치 40% 할인, 계란·삼푸는 연중 최저가 판매

이마트 창립 24주년 16일~22일까지 최대 할인행사

이마트가 창립 24주년을 맞아 연중 최대 규모 행사를 벌인다.

15일 광주지역 5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는 16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이 구매한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한다.

신선식품 중 가장 많은 고객이 찾았던 계란(알찬란 30구)을 연중 최저가인 3880원에 판매하고, 바나나는 전 품목 30%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축산 1위 상품인 삼겹살도 전 품목 40%할인, 수산 1위 갈치(제주 은갈치300g)는 40% 저렴한 3330원에 판매한다.

계란·삼겹살은 행사카드(삼성·KB·신한·현대 등) 구매시, 바나나는 신세계포인트 회원에 한한다.

또 가공생황식품에서는 올해 가장 많은 고객이 구매한 스낵을 이마트 최초로 브랜드에 상관없는 ‘골라담기’ 행사를 벌인다.

롯데, 오리온, 해태, 크라운, 농심 제과 5사 인기스낵 33종 중 제조업체와 상관없이 원하는 상품을 골라 2개 구매시 30%, 3개 구매시 40% 할인한다.

뷰티케어 부문 구매고객 수 1위를 한 헤어케어는 ‘아모레 러 진결모 삼푸’(490ml)

를 1만3900원에 1+1 행사를 진행, 연중 최저가에 선보이며 일반 삼푸·트리트먼트 40여종도 1+1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세제 부문 1위 세탁세제는 올해 처음으로 ‘퍼실파워월’(2.7ℓ·2개)과 ‘핸드카트’를 기획팩으로 묶어 2만2900원에 처음 선보인다. 라빙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건전지는 각 8800원인 ‘듀라셀’(A2·A3) 12개입 2개 이상 구매시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가전은 24주년을 기념해 삼성전자의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표품목 24가지를 KB국민·현대 등 행사카드로 구매시 24개월 무이자 할부행사를 진행해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의류에서는 다이즈(DAIZ)가 룩다운코트를 4만원 저렴한 8만9000원, 남·여 플리스 점퍼는 4000원 할인한 1만5900원에 선보인다.

아동플리스 점퍼도 6000원 할인한 9900원으로, 카드 프로모션(KB·신한·현대·BC·농협·우리·IBK·SC이마트)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레고는 16일부터 4일간 전 품목 30% 할인판매한다. 맥심커피(250입)는 50입 추가 증정해 2만7500원에 판매하며, 턱받이, 유아용컵, 치발기 등 날개 구매시 6900원인 유아용품 ‘골라담기’를 통해 3개 1만2400원에 준비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김장비용, 시장이 마트보다 19% 저렴

한국물가협회 조사

올해 김장비용이 전통시장에서 대형 마트보다 19%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13~14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대 주요 도시의 전통시장 8곳과 대형마트 9곳을 대상으로 배추와 무 등 김장용품 15개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장용품 비용은 전통시장에서는 25만70원, 대형마트에서 30만9600원이었다. 전통시장 김장비용은 지난해 25만4220원보다 1.6% 하락

했으며 대형마트 김장비용도 지난해 32만6050원보다 5%가량 내렸다.

올해 김장비용은 고춧가루, 생강 등의 부재료가 작황 부진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배추, 무 등의 주재료는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로 하락세를 보여 전반적인 가격이 지난해보다 1~5% 정도 하락했다고 물가협회는 설명했다.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는 대형마트가 더 저렴했다.

배추 16포기 기준 대형마트 가격은 2만8300원이었고 전통시장은 3만6800원으로 대형마트가 23% 정도 더 싸다. 나머지 재료인 무, 대파, 고춧가루, 새우젓 등은 전통시장이 더 저렴했다. /연합뉴스

햇떡·참쌀떡·사인펜, 수능때 편의점 판매 급증

편의점 GS25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 시험 전날과 당일 편의점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품은 햇떡으로 나타났다.

햇떡은 지난해 수능 전날 매출이 전주 대비 5배가량(400.3%) 늘었으며, 수능 당일에도 전주 대비 4배가량(384.7%) 증가했다.

햇떡 판매가 급증한 것은 추위를 피하려고 수험생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수

험생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GS25는 분석했다.

참쌀떡이 포함된 디저트빵 종류의 매출도 수능 전날과 당일에 전주 대비 각각 78.9%, 44.5% 신장했다. 수험생에게 선물하기 위해 참쌀떡 구매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능 시험에 필요한 사인펜, 볼펜 등 필기구 매출도 수능 전날과 당일에 전주 대비 40% 이상 늘었다. /연합뉴스

‘혼밥족’ 늘면서 국·탕·찌개 간편식 급증 ... 올 매출 89% 증가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이 늘면서 국·탕·찌개 가정간편식(HMR) 제품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츠텍 기준 국·탕·찌개 간편식 시장은 최근 4년간 연평균 20% 성장했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7%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89% 증가했다.

2013년 400억원대 초반 수준이던 국·탕·찌개 시장은 2015년 약 50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700억원대 규모로 커졌다. 올해에는 3분기까지 970억원 규모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국·탕·찌개 시장의 빠른 성장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밥 수준의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CJ제일제당은 분석했다.

조리가 간편하고 장시간 보관이 가능한 상온 제품들이 많아진 것도 시장이 확대된 이유 중 하나다. /연합뉴스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음,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800만원(조정가)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비금도,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음
- 매매 - 4900만원 (조정가)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음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